

“백운산, 서울대 무상양도 철회하라”

서울대 “학술림 법인 귀속 당연” 광양시·시의회 반대 입장문 발표 “시민 쫓겨해 국민 자산 지킬 것”

광양시와 시의회가 서울대학교의 광양시 백운산 학술림의 무상양도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백운산의 무상양도를 시도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서울대가 학술림을 국가로부터 무상양도 받는 것에 대한 법적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내용의 연구 과제를 발표한 것은 아직 백운산에 대한 무상양도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는 방증이다”면서 “광양시민의 반대가 큰 만큼 무상양도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와 의회는 “광양시와 광양시의회는 백운산의 무상양도를 시도하는 어떠한 행위도 절대 용납하

지 않을 것이며 시민이 쫓겨해 국민 자산을 지키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는 평의회 정책연구 과제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른 학술림 무상양도의 법적 당위성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서울대가 학술림을 국가로부터 무상양도 받는 것에 대한 법적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광양시의 반발을 샀다. 광양시는 2010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서울대의 법인화가 이뤄지자, 백운산에 있는 서울대 학술림의 법인 귀속 및 무상양도를 막기 위해 노력을 펼쳤다. 시민 8만3000명의 서명, 국회 토론회, 공공건의문 채택, 서울대 법률안 철회 촉구, 중앙부처 국립공원 지정 건의, 시민 총궐기 등의 활동을 전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무상양도하고 잔여자산을

국유재산으로 존치하는 방안으로 추진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시와 의회는 이번 서울대 연구발표 보고서가 학술림을 국가로부터 무상양도 받는 것에 대한 법적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내용으로 원점으로 회귀했다고 판단했다. 광양시의회는 “광양시민의 삶의 터전인 백운산을 가져가려는 어떠한 시도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총궐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백운산지킴이협의회도 지난 21일 무상소유 야욕 즉각 중단, 소유권 문제 재발 방지 등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운동에 들어갔다. 백운산 학술림은 법인과 이전 연구 목적으로 서울대가 관리해 왔으나 2011년 12월 법인화 전환 이후 10년째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소유권 문제를 해결 짓지 못하고 있다. 광양·구례군의 백운산남부학술림의 규모는 총 163㎢로 여의도 면적의 55배에 달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거문도~여수 1일 생활권 가능해졌다

새 여객선 파라다이스호 취항 주민 여수 체류 5시간으로 늘어

여수와 거문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새로 취항했다. 이에 따라 섬 주민들의 여수 하루 생활권이 가능해졌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여수~거문항로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해 여객선사인 엘에스업과 올해 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계약을 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거문도에서 출항하는 파라다이스호는 오전 8시에 출발해 동(서)도, 초도, 손죽도, 나로도를 거쳐 오전 10시 20분 여수에 도착한다. 이어 오후 4시 여수에서 출발해 오후 6시 20분

에 거문도에 도착한다. 이렇게 운항하면 여수 체류시간이 1시간에서 5시간 40분으로 늘어나게 돼 거문도 주민들은 하루 만에 육지 나들이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파라다이스호는 지난 15일부터 시범 운항을 시작했으며 23일부터 정식 운항에 들어갔다. 해수청은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에 따른 결손액을 국가(50%)와 여수시(50%)가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여수~거문항로는 여수에서 출발해 거문도로 운항하는 여객선이 지금도 하루 두 번 왕복 운항한다. 하지만 여수에 도착하면 1시간 뒤에 거문도로 다시 출항해야 하므로 거문도 주민들이 여수에서 업무를 보는 데 불편을 겪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순천 가곡지구 토지구획정리 21년만에 마무리

순천시의 숙원이던 가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1년 만에 해결되면서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과 강석암 양우내안에아파트 토지준공비상대책위원장,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장정형 가곡지구조합장은 지난 23일 순천시청에서 가곡택지 준공 조정합의서에 서명했다. <사진> 순천시는 최근 20년 이상 장기화한 가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조속한 준공을 위해 가곡조합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가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난 2000년 2월 시작해 2014년에 공사가 완료됐다. 하지만 조합의 재정난 등 다양한 이유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준공 처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 시는 2014년부터 조합 재정난으로 자체 유지관리가 어려운 도로, 가로등, 공원 등의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했다. 가곡지구 내 양우내안에 아파트 530세대는 토지 준공이 되지 않아 8년간 사용권사를 받지 못했



으며, 이로 인해 토지 등기를 할 수 없는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었다. 순천시와 가곡조합이 합의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이 이뤄져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가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준공 처리와 조합에서 환지처분 및 공공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형극으로 다문화 가정 정착 돕는다

‘가·나·다 인형극’ 사업 발대식 어린이집·학교 등 문화다양성 공연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김자용)는 지역내 다문화가정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인형극’ 사업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이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家)나(NA)다(多) 인형극 사업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은 이철호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 방기태 광양시 교육보육센터소장, 손경화 광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가·나·다 인형극장’ 사업은 ▲건강한 부모, 부부 역할에 대한 이해교육, 즐거운 ‘가(家)’ ▲한국 정착에 필요한 ‘나’와 가족의 미래 설계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행복한 ‘나(NA)’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다문화가족 인형극단 ‘색동나무’ 양성사업, 만족한 ‘다(多)’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올해 1월 14명의 단원으로 창단한 ‘색동나무’ 인형극단은 앞으로 단원을 확대 모집 및 양성하고 지역 내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등을 찾아 계층별로 맞춤형 문화다양성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거나 한국의 문화·특성



다문화가정의 정착을 돕기 위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가·나·다 인형극’ 사업의 발대식이 지난 23일 광양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열렸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공>

을 이주여성의 시각에서 전달하는 공연을 기획하고 있으며, 지역 대표 문화공연팀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광양제철소는 인형극단 운영에 전반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극단이 단편적인 지원을 받는 것에서 주체적인 다문화 이해 전달자로서 지역사회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이철호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은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고 상호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광양제철소는 앞으로도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곡성군 섬진강·보성강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34억원 들여 배수문 자동화

곡성군이 섬진강과 보성강에 ‘국가 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26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큰 피해를 입어 하천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재해 예방을 위해 홍수관리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에 국비 34억 원을 들여 섬진강과 보성강 배수문 등 26개소를 대상으로 홍수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다. 지난해 11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올해 3월 익산국토관리청과 최종 협의를 완료했으며 다음 달 공사에 들어간다. 이 시스템은 배수문에 원격 제어 전자동화 시설

을 설치해 수위에 따라 배수문이 자동으로 개폐되거나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다. 곡성군 관계자는 “홍수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하천 재해를 미리 막고 재난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 주민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kwangju.co.kr

보성군, 경남 하동군과 차산업 발전 공동 대응

대한민국 차(茶)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전남 보성군과 경남 하동군이 한국 차 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보성군은 최근 녹차밭으로 유명한 북재에서 김철우 보성군수와 윤상기 하동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차 산업 발전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차 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과 내년에 개최되는 보성·하동 엑스포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차의 효능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관광·직불금 지원 대상에 차나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공동 건의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내년 개최 예정인 보성·하동 엑스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서로 홍보관을 개설하고 보성과 하동을 잇는 티 로드(Tea Road) 상품을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한국 차를 세계에 알리고 전 세계인이 한국의 차를 통해 두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엑스포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